

<b>배포일시</b>	2019. 5. 23.(목) 11:00 (총 24매)	<b>보도시점</b>	<b>즉 시</b>
<b>담당부서</b>	기후서비스과	<b>담당자</b>	과 장 김 재 영 사무관 김 연 희
		<b>전화번호</b>	062-720-0669

### 3개월 전망(2019년 6월~8월)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강수량]**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태 풍]** 여름철 태풍은 평년 수준인 1~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1.1~21.5℃)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52.7~230.0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7월)**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또한,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적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2~25.2℃)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213.9~300.1mm)과 비슷하겠습니다.
- **(8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5.4~26.2℃)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92.2~309.6mm)과 비슷하겠습니다.
- **(태풍)** 여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게 11~13개가 발생하여, 평년 수준인 1~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 **(엘니뇨·라니냐)** 여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6월 ~ 8월) 요약]

	6월	7월	8월
평균기온			
	평년(21.1~21.5°C)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24.2~25.2°C)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25.4~26.2°C)과 비슷하거나 높음
강수량			
	평년(152.7~230.0mm)과 비슷하거나 적음	평년(213.9~300.1mm)과 비슷	평년(192.2~309.6mm)과 비슷
기온 <span style="color: blue;">■</span> 낮음 <span style="color: grey;">■</span> 비슷 <span style="color: red;">■</span> 높음    강수량 <span style="color: orange;">■</span> 적음 <span style="color: grey;">■</span> 비슷 <span style="color: green;">■</span> 많음			

※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의 평균

※ 위 표의 확률 해석은 아래와 같으며, 평년기간은 1981~2010년입니다.

#### ※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높음(많음)
(20:40:40)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평년과 비슷
(40:30:30) (30:40:30) (30:30:40)	
(40:40:20)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 【 알 림 】

- 3개월 전망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http://www.weather.go.kr)) → 특보·예보 → 3개월전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9년 6월 21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2019년 여름철 전망

## 목 차

- I. 2019년 봄철 기상특성
  -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III. 여름철 전망
  - IV. 태풍 전망
  - V. 가을철 기후전망
  - VI. 최근 10년 여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참고] 계절길이 및 폭염·열대야일수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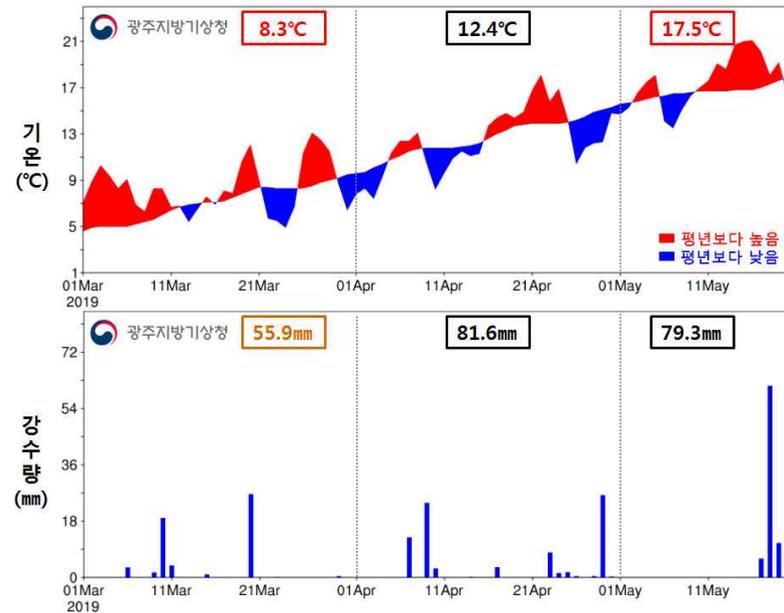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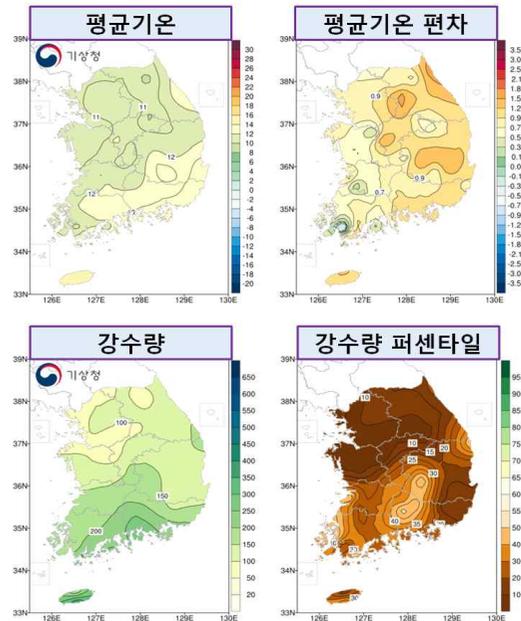


광주지방기상청

# I. 2019년 봄철 기상특성

## 1. 봄철 기온과 강수량(2019.3.1.~2019.5.20.)

-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2.1°C로 평년(11.5°C)보다 높았음.
  - 3~5월 각 평균기온은 8.3°C, 12.4°C, 17.5°C로 평년(3월 7.0°C, 4월 12.6°C, 5월 1~20일 16.6°C) 대비 4월은 비슷했으나, 3월과 5월은 높았음.
- 광주·전남 강수량은 216.8mm로 평년(229.1mm~304.5mm)보다 적었음.
  - 3~5월 각 강수량은 55.9mm, 81.6mm, 79.3mm로 평년(3월 65.0~80.5mm, 4월 81.4~117.7mm, 5월 1~20일 65.1~99.0mm) 대비 3월은 적었으나, 4월과 5월은 비슷했음.



[그림 1] (왼쪽) 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퍼센타일<sup>1)</sup> 분포도, (오른쪽) 광주전남 평균기온 편차와 일강수량 시계열(2019.3.1. ~ 2019.5.20.)

1) 퍼센타일: 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 가장 큰 값을 100으로 하는 수(평년비슷범위: 33.33~66.67퍼센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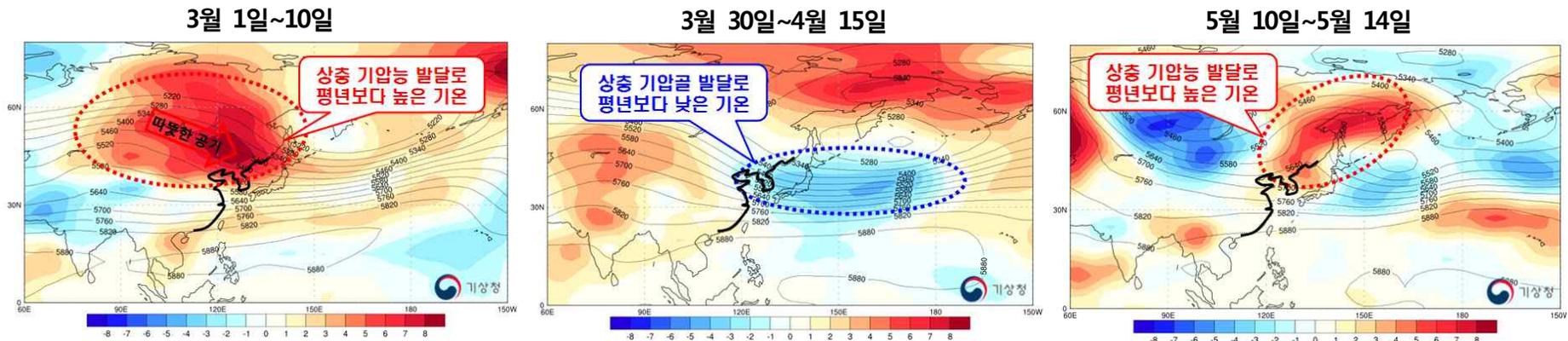
## 2. 봄철(3.1.~5.20.) 특이기상

### ○ [기온] 평년보다 높고 큰 기온 변화

- (고온 원인) 2월 후반부터 중국 북동부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의 영향이 3월 10일까지 이어지면서 고온현상이 지속되었음(그림 2 왼쪽). 4월 중반 이후에는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하층에서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크게 오른 날이 많았음.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그림 2 오른쪽).
- (큰 기온 변동)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고·저온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봄철 기온 변화가 매우 컸음. 특히, 3월 말~4월 중반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이 많았음(그림 2 가운데).

### ○ [강수량] 대체로 적은 비

- 3월과 4월은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강수일수는 모두 평년 수준이었으나,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고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음.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나 두 차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그림 2] 500hPa(약 5.5km 상공) 지위고도(실선)와 850hPa(약 1.5km 상공) 기온 편차(채색)

※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높/낮은 기온

○ 황사

－ 봄철 광주·전남 황사일수는 0일로 평년(5.2일)보다 적었음.

※ 광주·전남 황사일수는 3개(광주, 목포, 여수) 목측 관측지점의 황사 관측일수의 평균값

－ 봄철 발원지에서의 황사 발생은 주로 몽골 등 북쪽으로 치우쳐 발생한 후,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에는 황사의 영향이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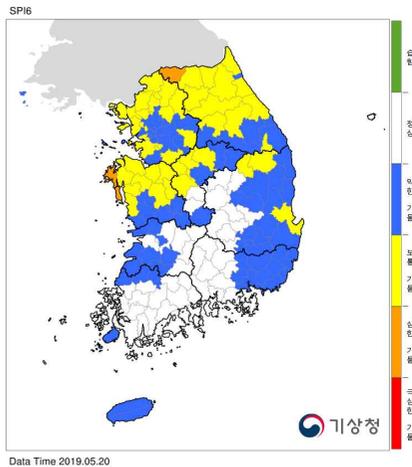
○ 기상 가뭄

－ 최근 6개월('18.11.21.~'19.5.20.) 광주·전남 누적강수량(311.5mm)은 평년(383.6mm)의 81% 수준이며, 현재(5.20.) 전라남도 북부와 서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기상 가뭄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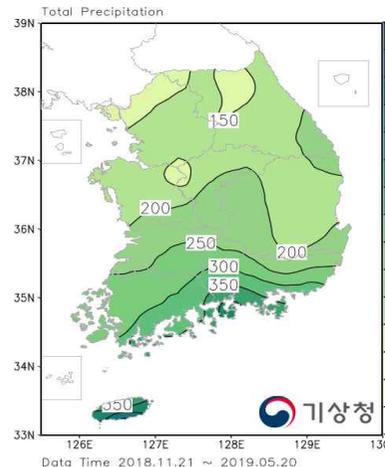
※ 전국 지역별 6개월 누적강수량/평년비: (중부지방) 172.0mm/60%, (남부지방) 257.7mm/77%, (제주) 407.3mm/73%

－ 특히, 봄철 기간 동안 강수 구름대가 제주도 및 남쪽 먼 바다를 통과하거나 발달 정도가 약해 봄철 광주·전남 강수량(216.8mm)이 평년(260.6mm)보다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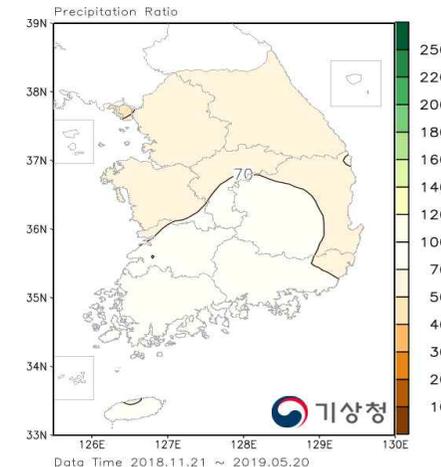
※ 단, 농업용수 부족은 없으며, 생활 및 공업용수는 곡성이 관심단계임.



[그림 3] 행정구역별 기상 가뭄 현황(5.20.)



[그림 4]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mm) 및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2018.11.20. ~ 2019.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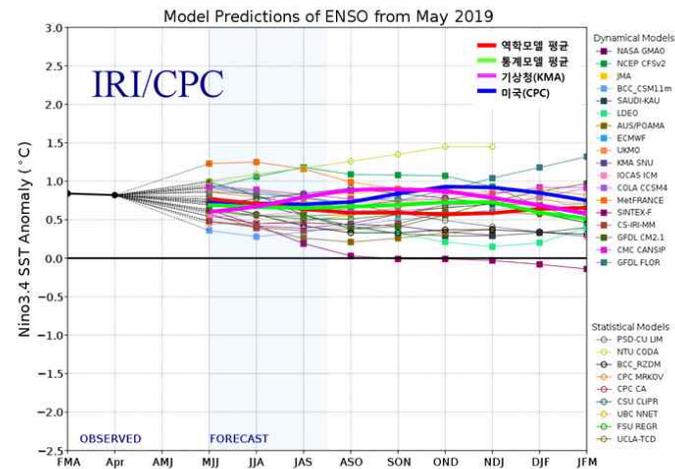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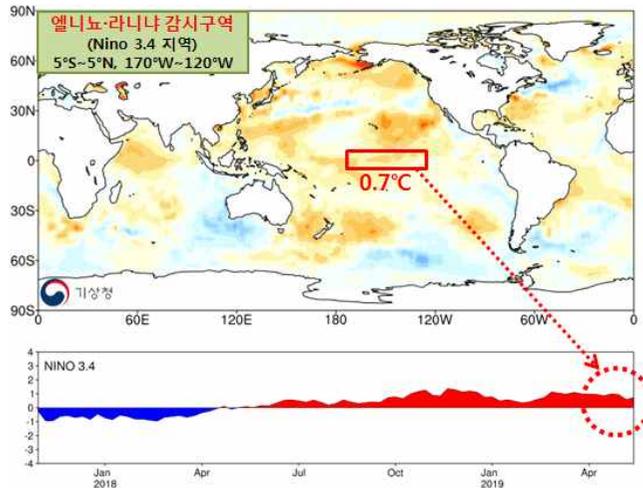


##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최근(2019.5.12.~5.18.)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7°C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2019년 2월 +0.6°C, 3월 +0.7°C, 4월 +0.8°C(ERSSTv42)

-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한 엘니뇨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측 결과에 의하면 올 여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왼쪽)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최근(5.12~5.18.) 해수면온도 편차(OISSTv2<sup>3</sup>), (오른쪽) 세계 각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 결과(출처: IRI<sup>4</sup>)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2016.12.23.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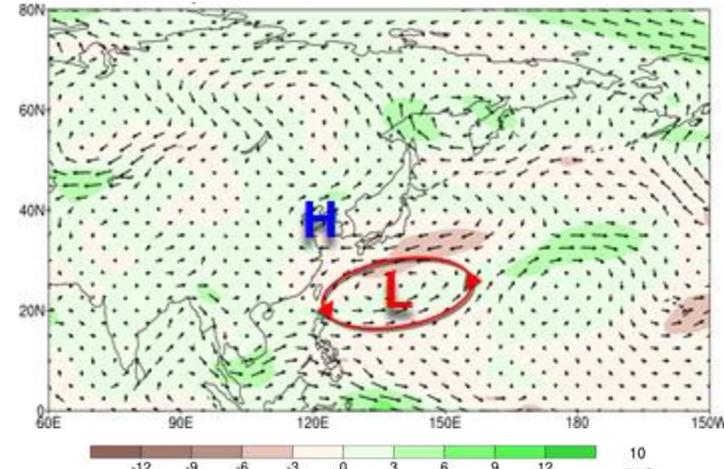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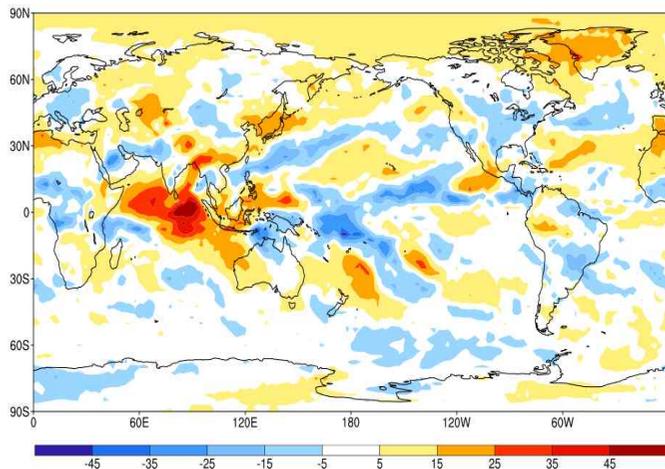
2) ERSSTv4: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확장 복원된 해수면 온도)  
 3)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최적 내삽법된 해수면 온도)  
 4) IR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기후 및 사회를 위한 국제 연구 기관)

### Ⅲ. 여름철 전망

#### 1. 기후감시 및 분석

##### ○ 최근 열대 해수면온도 및 대류활동 현황 (5.1.~5.18.)

- (해수면온도)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은 평년보다 높은 상태, 열대 서태평양 부근과 베링해 부근에서는 양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동인도양은 약한 음의편차를 보이고 있음.
- (대류활동) 동인도양 및 인도네시아 부근은 전반적으로 대류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북서태평양 및 열대 서태평양과 중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대류가 활발(저기압성 순환 편차)한 상태임.



[그림 6] 최근(5.1.~5.18.) (왼쪽) 지구장파복사(OLR)<sup>5)</sup> 편차와 (오른쪽) 동아시아 850hPa의 바람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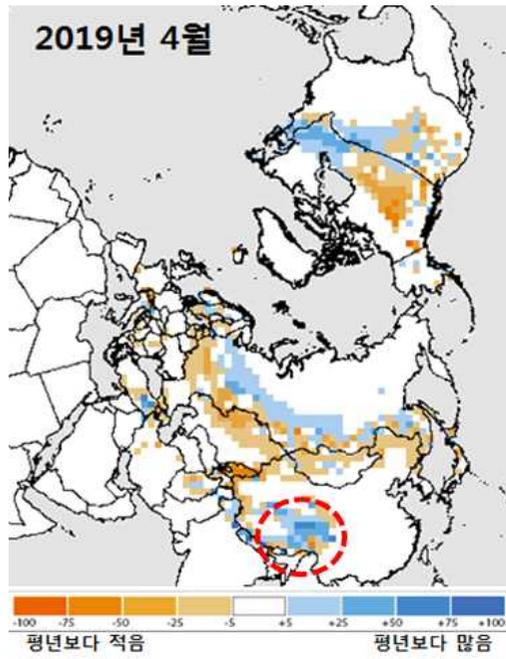
※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대류 억제(활발)**, **녹색/갈색** 채색: **강한(약한)** 바람

5) 지구장파복사(Outgoing Longwave Radiation, OLR):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영역 복사에너지로, 대류활동(상승기류)이 강한 영역에서 음의 값(파란색)을, 대류 억제(하강기류)가 강한 영역에서 양의 값(빨강색)을 나타냄. OLR 편차가 음이면 평년보다 대류활동이 활발하여 상승운동이 강해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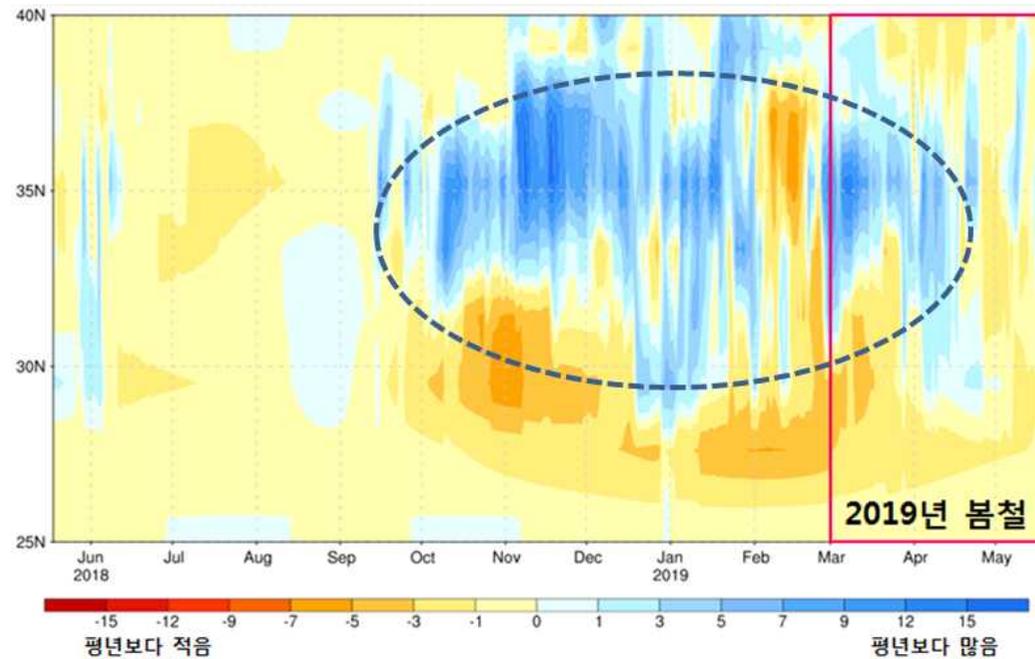
○ 눈덮임 현황

- 티베트 고원의 눈덮임은 지난 가을 이후 4월까지 평년보다 많은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녹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티베트의 많은 눈덮임이 지상기온의 상승을 완화시켜, 여름철 초반 티베트 고기압 발달이 지연되고 상층제트가 평년보다 남하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만큼 북상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함.



※ 출처: Rutgers 대학



※ 출처: NCEP/NCAR 재분석자료, NOAA(미국 국립해양대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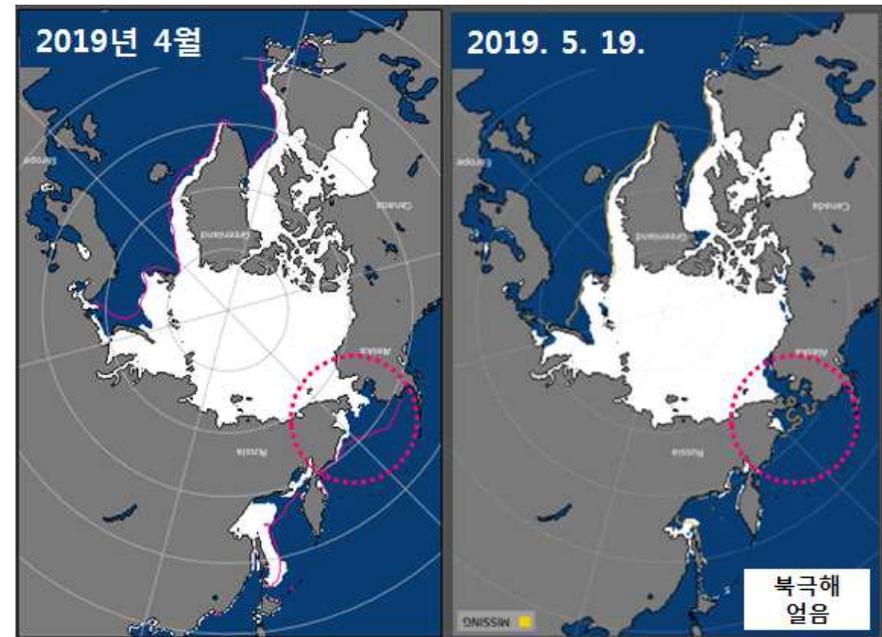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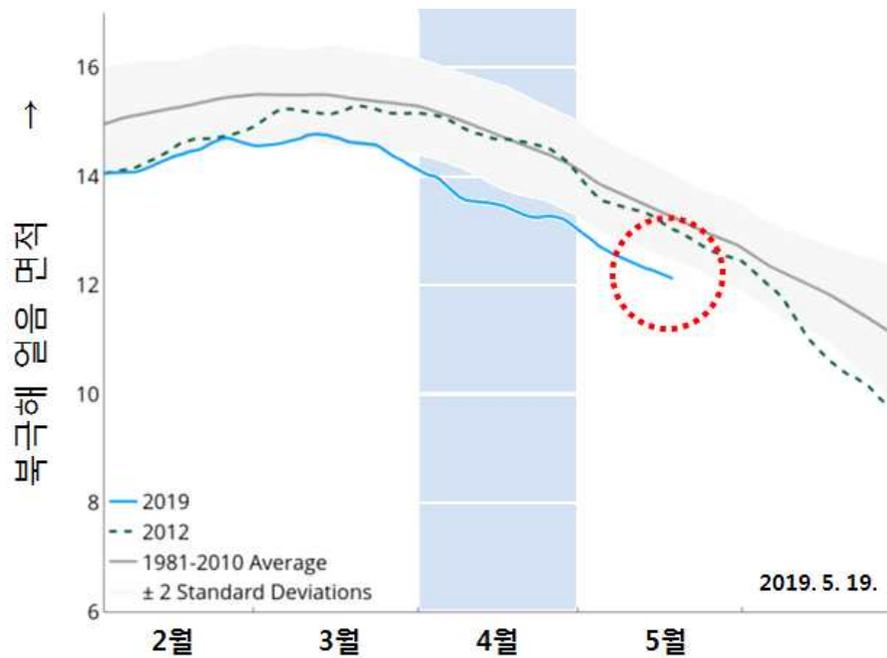
[그림 기 (왼쪽) Rutgers 월별 눈덮임 편차(4월)와 (오른쪽) 티베트 눈덮임 편차 시계열(2018.5.18~2019.5.18)]

○ 북극해 얼음

- 북극해 얼음의 전체 면적은 계절 변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북극해 얼음 면적은 1979년 관측 이래 최소 면적을 기록함. 특히, 베링해 부근에서 평년에 비해 적은 경향이 뚜렷함.

\* 4월 극값 : 최저 1위(2019년) 1,345만km<sup>2</sup>, 최저 2위(2016년) 1,368만k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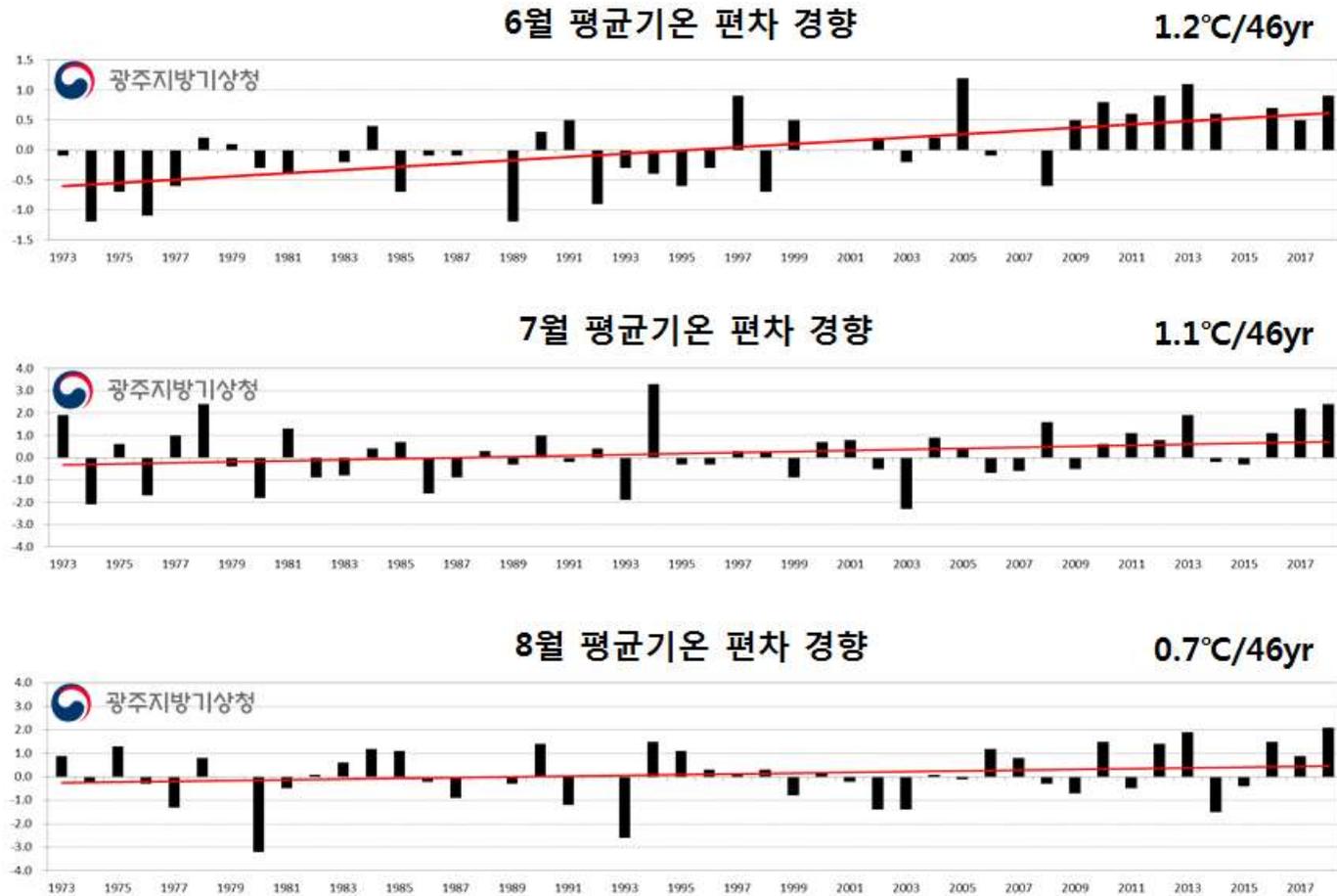
⇒ 우리나라 기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음.



[그림 8] (왼쪽) 북극해 얼음 면적 변화와 (오른쪽) 북극해 얼음 면적 분포(5.19)

○ 온난화 경향

- 광주·전남 여름철 월별 평균기온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6월의 기온 증가 경향성이 뚜렷함.



[그림 9] 연도별(1973년-2018년) 광주·전남 월 평균기온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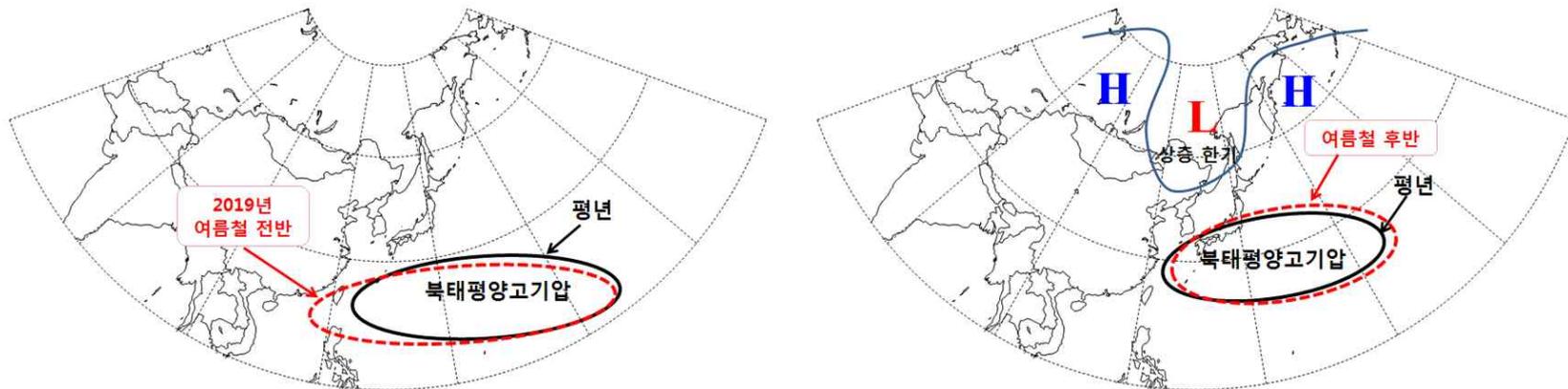
○ 기압계 전망

- (전반)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고, 북쪽으로의 확장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 강수대가 북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남쪽에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후반)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 수준으로 점차 확장하겠고,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편차가 크겠고,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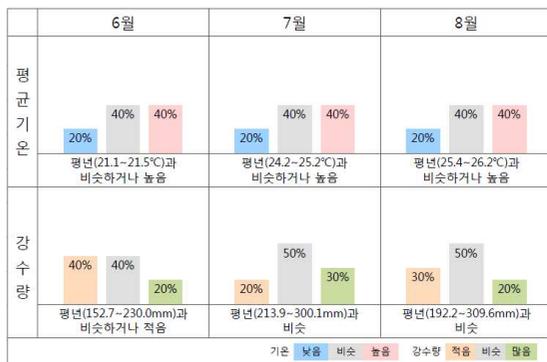
[그림 10] 여름철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 2. 여름철 전망

[기 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강수량]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9년 6월~8월) 요약]



### ○ 날씨 전망

- 6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1.1~21.5°C)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52.7~230.0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7월 :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후반에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또한,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적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4.2~25.2°C)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213.9~300.1mm)과 비슷하겠습니다.

- 8월 :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으나,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25.4~26.2°C)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92.2~309.6mm)과 비슷하겠습니다.

## IV. 태풍 전망

### 1. 태풍 활동 특징

○ 태풍발생 현황

－ 4월까지 태풍은 2개(평년: 1.3개)가 발생함.

○ 해양현황

－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필리핀 동쪽 해상의 수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대류 활발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표 1] 태풍 발생 현황(2019년 5월 20일 현재)

(평년: 1981-2010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1	0.3	0.6	1.0	1.7 (0.3)	3.6 (0.9)	5.9 (1.0)	4.9 (0.7)	3.6 (0.1)	2.3	1.2	25.6(3.1)
금년	1(0)	1(0)	0(0)	0(0)	0(0)	-	-	-	-	-	-	-	2(0)

※ (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발생일 기준)을 준 태풍 수임.

## 2. 2019년 여름철 태풍 전망

- 여름철(6~8월) 북서태평양에서 평년 수준의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평년과 비슷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11~13개가 발생(평년 11.2개)하여, 1~3개 정도(평년 2.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



[그림 11] 엘니뇨와 라니냐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진로 모식도

## V. 가을철 기후전망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가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1. 기온 전망

평년(13.8~14.4℃)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쌀쌀할 때가 있겠습니다.

### 2.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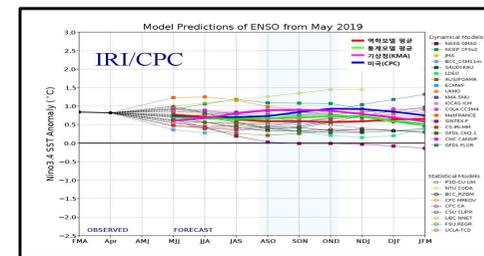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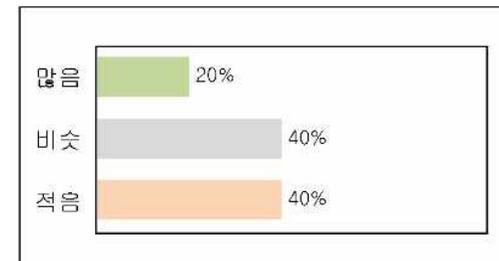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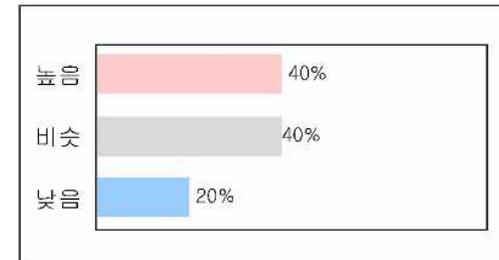
평년(193.3~314.0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기가 불안정하겠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으나,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중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 3. 엘니뇨·라니냐 전망

가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가을철에 대한 3개월 전망(2019년 9월 ~ 11월)은 2019년 8월 23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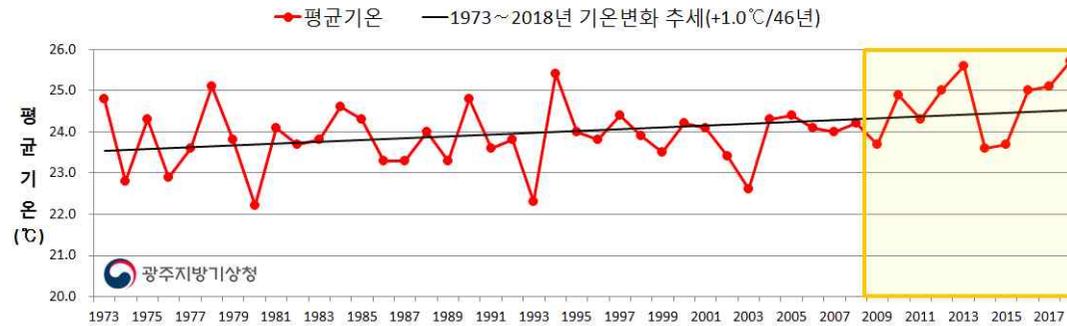
※ 참고사항 :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 VI. 최근 10년(2009년~2018년) 여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1. 기온과 강수량 특성

####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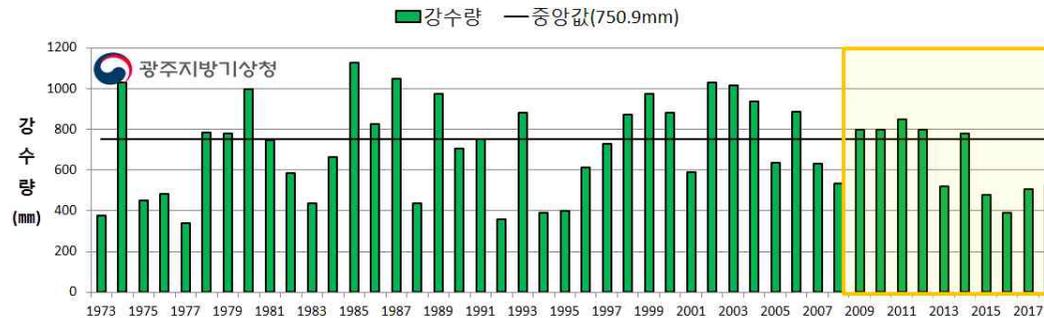
- 최근 10년 여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23.9℃)보다 0.8℃ 높았음.



[그림 12] 연도별(1973년-2018년) 여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

#### ○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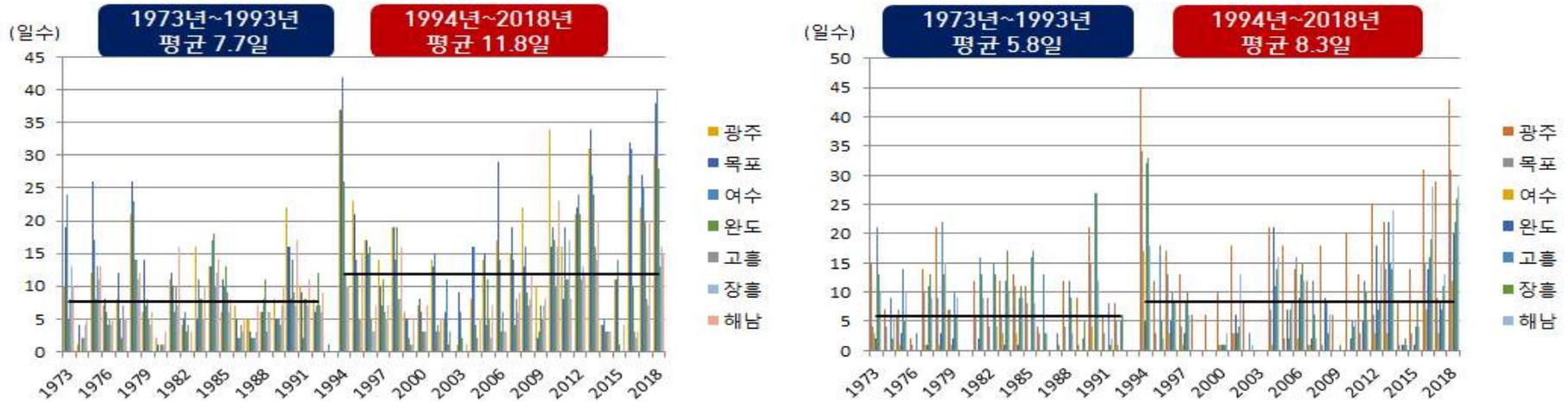
- 최근 10년 여름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643.8mm로 평년(634.6~874.6mm)과 비슷했음.



[그림 13] 연도별(1973년-2018년) 여름철 광주·전남 평균 강수량

○ 열대야<sup>6)</sup> 및 폭염<sup>7)</sup> 일수

– 1994년 이후(1994~2018년) 광주·전남 열대야 및 폭염 일수는 1994년 이전(1973~199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14] 광주·전남 (왼쪽) 연도별 열대야 일수, (오른쪽) 연도별 폭염 일수(1973~2018년)

[표 2] 최근 10년 광주·전남 월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기온(평년편차)	°C	18.2(+0.8)	22.0(+0.7)	25.6(+0.9)	26.4(+0.6)	22.1(+0.3)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C	23.8 / 13.2	26.4 / 18.5	29.3 / 22.8	30.5 / 23.3	26.8 / 18.2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111.2 / 8.8	128.4 / 9.6	254.8 / 13.9	260.5 / 12.4	137.7 / 9.3
일조시간	시간	240.2	177.5	166.3	191.7	188.8
열대야 일수(밤최저기온 25°C 이상)	일	0.0	0.0	6.1	8.5	0.2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	0.1	0.2	3.4	6.4	0.3

※ 기온·강수량은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일조시간은 4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지점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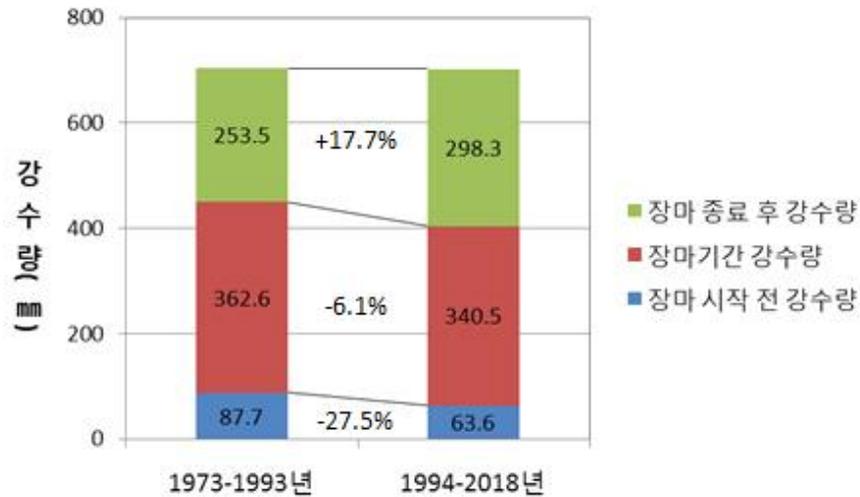
※ 최근 10년: 2009~2018년 / 평년기간: 1981~2010년

6) 열대야 일수: 당일 저녁 18시부터 익일 아침 09시 중의 최저기온이 25°C이상인 일수

7) 폭염 일수: 일 최고기온이 33°C이상인 일수

## 2. 여름철 강수량 변화

- 1994년 이후(1994~2018년)의 광주·전남 여름철 강수량은 1994년 이전(1973~1993년)과 비교하여 장마 시작 전 강수량이 27.5% 감소하였으며, 장마 종료 후 강수량은 17.7% 증가하였음.



[그림 15] 여름철 광주·전남 강수량 변화

[표 3] 여름철 광주·전남 강수량 변화

(단위 : mm)

기간	장마 시작 전	장마 기간	장마 종료 후	여름철
1973-1993년	87.7	362.6	253.5	703.9
1994-2018년	63.6	340.5	298.3	702.4
변화율(%)	-27.5	-6.1	+17.7	-0.2

[표 4] 평년 장마기간 및 강수량

지역 <sup>8)</sup>	시작일	종료일	기간(일)	평균강수량(mm)
중부지방	6.24.~25.	7.24.~25.	32	366.3
남부지방	6.23.	7.23.~24.	32	348.6
제주도	6.19.~20.	7.20.~21.	32	398.6

※ 전국 평균강수량: 356.1mm

8) 중부지방 19개, 남부지방 26개, 제주도 2개, 전국 45개 평균

### 3. 특이기상 및 영향

#### ○ 고온 현상

##### － (2018년 8월)

-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과 강한 일사의 영향 및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 남쪽을 지나면서 유입된 동풍의 영향과 지형효과까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1973년 이래 평균기온 최고 1위, 최고기온 최고 3위, 최저기온 최고 1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기온(℃): 1위 27.9(편차 +2.1) / [2위 2013년 27.7(편차 +1.9)], 월평균 최고기온(℃): 3위 32.1(편차 +2.2) / [1위 2013년 32.5(편차 +2.6)]

월평균 최저기온(℃): 1위 24.7(편차 +2.1) / [2위 2010년 24.6(편차 +2.0)]

일최고 기온(℃) [8월 극값 1위]: 1일 진도(첨찰산) 35.6, 2일 영광군 37.6, 15일 광주 38.5, 흑산도 34.9

##### － (2018년 7월)

-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맑은 날씨로 인한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져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음. 평균기온 최고 2위, 최고기온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기온(℃): 2위 27.1(편차 +2.4) / [1위 1994년 28.0(편차 +3.3)], 월평균 최고기온(℃): 2위 31.4(편차 +3.0) / [1위 1994년 33.0(편차 +4.6)]

일최고 기온(℃) [7월 극값 1위]: 27일 광주 38.5, 해남 36.6, 진도(첨찰산) 35.5

##### － (2018년 6월)

- 이동성 고기압과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월평균 기온(℃): 3위 22.2(편차 +0.9) / [1위 2005년 22.5(편차 +1.2)], 월평균 최고기온(℃): 4위 27.0(편차 +1.2) / [1위 1997년 27.4(편차 +1.6)]

일평균 기온(℃) [6월 극값 1위]: 25일 진도(첨찰산) 24.4

일최고 기온(℃) [6월 극값 1위]: 25일 진도(첨찰산) 30.7, 영광군 33.3, 해남 33.2

일최저 기온(℃) [6월 극값 1위]: 27일 여수 22.8, 진도(첨찰산) 21.6

##### － (2017년 7월)

-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1973년 이래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각각 최고 4위, 최고 1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 기온(℃): 4위 26.9(편차 +2.2) / [1위 1994년 28.0(편차 +3.3)]

월평균 최저기온(℃): 1위 24.0(편차 +2.1) / [2위 2013년 24.0(편차 +2.1)]

일평균 기온(℃) [7월 극값 1위]: 24일 진도(첨찰산) 28.3,

일최고 기온(℃) [7월 극값]: 24일 3위 진도(첨찰산) 34.0

일최저 기온(℃) [7월 극값] 21일 3위 목포 27.3, 24일 1위 진도(첨찰산) 24.8, 2위 영광군 26.7, 4위 흑산도 25.6

#### — (2017년 6월)

- 후반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었으며, 낮 동안에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일최고 기온(℃) [6월 극값]: 15일 2위 여수 31.6, 18일 3위 완도 31.4, 19일 2위 진도(첨찰산) 30.4, 4위 해남 32.2

#### — (2016년 6월)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으며,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2위 기록하였음.

월평균 최저기온 2위 19.0(편차 +1.5) / [1위 2013년 19.2(편차 +1.7)]

### ○ 저온 현상

#### — (2014년 8월)

- 전반에는 두 차례의 태풍 영향, 후반에는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았음.

월평균 기온(℃): 3위 24.3(편차 -1.5) / [1위 1980년 22.6(편차 -3.2)], 월평균 최고기온(℃): 3위 27.6(편차 -2.3) / [1위 1980년 26.3(편차 -3.6)]

### ○ 많은 비

#### — (2018년 6월 19일)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6월 19일, 남부와 중부지방은 26일부터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mm) [6월 극값]: 28일 3위 영광군 63.5, 5위 흑산도 90.5 등

#### — (2014년 8월)

-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렴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렸음.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음.

강수일수(일): 2위 18.7(평년비 +6.3) / [1위 1993년 20.4(평년비 +8.0)]

일강수량(mm) [8월 극값]: 2일 2위 고흥 306.5, 3위 여수 223.6, 5위 장흥 213.5, 18일 2위 영광군 213.0

— (2010년 7월)

- 열대저압부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mm) [7월 극값]: 11일 2위 흑산도 180.5, 영광군 146.5, 3위 광주 191.0, 16일 1위 여수 288.0

○ 태풍(일강수량, 최대순간풍속)

— (2015년 7월 11~13일)

-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및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음.

11~13일 누적강수량(mm): 해남 185.3, 고흥 122.0, 목포 110.9

— (2012년 8월 25~30일)

-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블라벤’이 연달아 상륙하여,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m/s) [8월 극값 1위]: 28일 완도 51.8, 진도(침찰산) 43.6, 장흥 33.9 등

— (2012년 7월 18~19일)

- 제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서쪽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m/s) [7월 극값]: 18일 3위 고흥 21.9, 4위 완도 30.0, 19일 1위 영광군 18.3 등

— (2011년 8월 6~10일)

-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로 북상하여 전남 해안지역에 강풍과 함께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mm) [8월 극값 1위]: 9일 영광군 297.0

— (2011년 6월 25~26일)

-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최대순간풍속(m/s) [6월 극값 1위]: 26일 흑산도 34.8, 진도(침찰산) 29.3, 고흥 21.5, 영광군 21.3

○ 건조 및 가뭄

— (2016년 8월)

- 북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의 고기압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강수량이 적었음. 1973년 이래로 강수량이 최소 1위를 기록하였음.

월강수량(mm): 1위 41.2, 강수일수(일): 1위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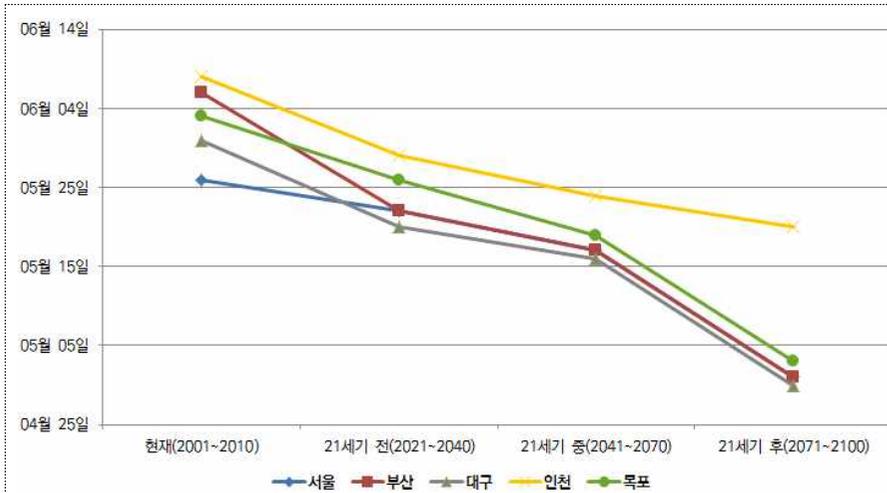
## [참고] 여름 계절길이 및 폭염·열대야일수 장기전망(RCP8.5<sup>9)</sup> 기준, 5대 도시<sup>10)</sup>)

계절시작일 정의(이병설, 1979)

(봄)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여름) 일평균 기온이 20℃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가을) 일평균 기온이 20℃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겨울) 일평균 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 ○ 여름 시작일과 계절길이 전망

- 21세기 후반의 여름 시작일은 현재<sup>11)</sup>보다 평균 30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5월 말~6월 초에 여름이 시작되지만 21세기 후반에는 대부분 5월 초에 여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전망됨(인천 제외)



[그림 16] 5대 도시별 여름 시작일 전망

[표 5] 5대 도시별 여름 계절길이 전망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평균
현재 (2001~2010년)	124	117	115	109	120	117
21세기 전 (2021~2040년)	131 (7)	136 (19)	128 (13)	123 (14)	130 (10)	130
21세기 중 (2041~2070년)	142 (18)	148 (31)	141 (26)	135 (26)	144 (24)	142
21세기 후 (2071~2100년)	168 (44)	177 (60)	166 (51)	148 (39)	174 (54)	167

※ ( )는 현재 대비 여름 계절길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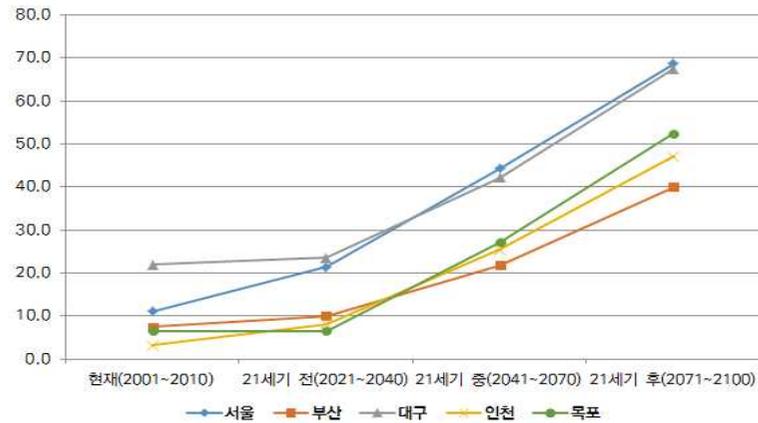
9)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가정한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10) 관측기간이 100년 이상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11) 현재: 관측자료를 1km 해상도로 격자화하여 산출한 기후자료(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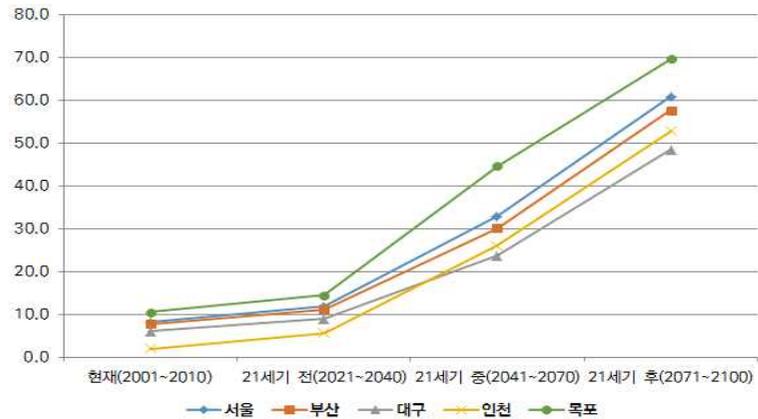
○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전망

– 21세기 후반에는 현재에 비해 폭염일수가 평균 45.2일, 열대야일수가 평균 51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평균
현재(2001~2010년)	11.1	7.5	21.9	3.2	6.5	10.0
21세기 전(2021~2040년)	21.4 (+10.3)	10.1 (+2.6)	23.5 (+1.6)	8.2 (+5.0)	6.6 (+0.1)	14.0
21세기 중(2041~2070년)	44.3 (+33.2)	21.8 (+14.3)	42.2 (+20.3)	25.4 (+22.2)	27.2 (+20.7)	32.2
21세기 후(2071~2100년)	68.7 (+57.6)	40.0 (+32.5)	67.5 (+45.6)	47.2 (+44.0)	52.5 (+46.0)	55.2

[그림 17] 5대 도시별 폭염일수 전망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목포	평균
현재(2001~2010년)	8.2	7.8	6.1	2.0	10.5	6.9
21세기 전(2021~2040년)	11.9 (+3.7)	11.2 (+3.4)	8.9 (+2.8)	5.6 (+3.6)	14.5 (+4.0)	10.4
21세기 중(2041~2070년)	32.9 (+24.7)	30.2 (+22.4)	23.7 (+17.6)	26.1 (+24.1)	44.6 (+34.1)	31.5
21세기 후(2071~2100년)	60.9 (+52.7)	57.7 (+49.9)	48.5 (+42.4)	52.8 (+50.8)	69.7 (+59.2)	57.9

[그림 18] 5대 도시별 열대야일수 전망